



## 베트남 경제의 회고와 전망

### 1. 개 관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개혁정책인 도이머이(刷新)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 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 위기의 파고를 큰 영향 없이 넘기고 2001년에는 미국과 일반무역협정(NTR)을 체결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말에 그동안 정부의 숙원이었던 WTO 가입을 실현하고 미국과 항구적일반무역협정(PNTR)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을 선언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등 개방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베트남 경제는 2000년대 들어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7.5%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에 원유·원자재의 국제가격 급등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촉발된 경제 불안으로 호치민시주가지수(HOSE)가 2007년 최고치 대비 약 70%나 폭락하고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불안이 확산되었다. 일각에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의 경제위기 상황이었으나,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긴축정책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베트남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일본의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아 상품수출액은 전년 대비 12%나 감소한 553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베트남은 노동집약적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기준으로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경제성장률이 4.7%로 하락하는 등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여건이 다소 악화되었다.

현재 베트남 경제가 직면한 제반 문제들은 2010년에도 지속될 것이나,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도 경기 부양정책 이후 신속한 인플레이 억제정책을 실시하는 등 경기 조절에 노력하고 있어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2. 2009년 경제 회고

### 가. 2008년 중 고인플레이로 인한 경제 불안 심화

2007년 12월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3%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함으로써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이후 2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베트남 경제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은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의 34.2%를 차지하는 식료품의 가격이 2008년 상반기중에 42.4%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베트남 물가상승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내의 유동성 확대를 들고 있다.<sup>24)</sup> IMF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 내 국내신용<sup>25)</sup>은 2007년 중에만 150%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WTO 가입 이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 육성을 위해 과도한 기업 공개 및 확장을 추진하였고, 2007년 중 외국인직접투자 승인액이 사상 최고치인 20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투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으며, 베트남 재외교포(Viet Kieu) 및 해외근로자의 국내 송금이 증대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나. 경제불안 극복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

IMF와 주요 국제기구들은 2008년 중 베트남의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내 유동성 감축 정책이다. 베트남 정부가 국제적 기준의 대기업 육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통화량 증가를 용인한 것이 인플레이의

24) IMF, Vietnam's New Challenges Amid Signs of Overheating, March 7, 2008

25) 통화량 + 국내대출



대내적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둘째, 환율의 유연성 확대이다. 베트남 동화 환율은 사실상 미 달러화에 연동(peg)되어 있는데, 이는 미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동화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수입 물가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도 환율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셋째, 국내 경기의 과열을 몰고 온 국영부문의 투자 축소이다. 베트남 국영기업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영상업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이 자금을 기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및 주식 매입에 집중하여 거품을 불러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불안요인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보면, 우선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14%로 인상하며, 시중은행의 최대 대출금리를 21%로 인상<sup>26)</sup>하여 베트남 내 실질 금리를 상당부분 반영하였다.<sup>27)</sup> 둘째, 국내 통화량 환수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증서를 발행하였다. 셋째, 기 승인한 투자사업의 시행, 외화대출의 상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외화대출을 금지하였으며, 국영기업의 투자 억제를 위해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 하였다. 넷째, 환율 변동폭 확대를 위해 미 달러화에 대한 동화의 환율 변동폭을 기존 상하 1%에서 상하 2%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후 5%까지 확대하였다.<sup>28)</sup> 이러한 조치들은 베트남 정부가 경제목표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선회한 것을 의미하며, IMF 등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정부의 긴축 정책들이 2008년 하반기 이후 시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베트남 경기 둔화로 물가 상승률이 7.4%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성장을 둔화 및 재정 적자 확대

베트남은 2005~07년 중 제2위 수출품목인 섬유 및 식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26) 베트남 시중은행의 최고 대출금리를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150%로 제한하였음.

27) 베트남 중앙은행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 의한 베트남 경제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지속 인하하여 2009년초에는 7%까지 인하하였음. 최근에는 베트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플레이 우려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2009년 11월에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8%로 인상하여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인플레이 억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28) 2009년 11월 26일, 베트남 정부가 상품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동화를 5% 평가절하하면서, 동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 변동폭은 3%로 축소되었음.



제조업 부문이 매년 15%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개인 소비와 고정투자가 확대되면서 연평균 8.4%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인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경기가 위축되었고,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일본의 경기 둔화로 수입수요가 크게 축소되면서 베트남의 수출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경제성장률이 6.2%로 둔화되었다. 2009년에는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3%로 하락하여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도 4.7%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 5월에 경기 부양을 위해 8개 분야에 걸쳐 8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지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정부 공공사업의 조기 시행,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저리 대출 및 보증<sup>29)</sup> 지원, 감세 등이다. 저리 대출 지원은 수출 기업 등 특정분야의 생산·사업 자금을 베트남 시중은행이 저리로 대출하고 그 차액을

〈표 VI-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제 성 장 률	8.2	8.5	6.2	4.7	6.0
재 정 수 지 / GDP	-2.9	-7.3	-5.4	-9.1	-8.0
소비자물가상승률	7.4	8.3	23.1	7.4	8.5

자료: EIU, Country Report, Dec., 2009.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감세 정책은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sup>30)</sup>, 세금납부 유예<sup>31)</sup>, 개인 소득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재정수지는 적자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대 GDP비율은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였던 2007년을 제외하고는 4~5%를 유지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따라 인프라 및 복지 부문의 재정수요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석유 수출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sup>32)</sup>된 데 기인한다. 그러나 2009년에는 베트남

29) 베트남 중소기업(자본금 112만 달러 이하이고 종업원 500인 이하)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베트남의 유일한 국책은행인 베트남개발은행(VDB)이 보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자 등의 분야는 제외됨.

30) 중소기업에게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납세액을 30% 감면하고 9개월간 납부를 유예함.

31) 농수산물, 직물 및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9개월간 세금 납부를 유예함.



〈표 VI-2〉

## 베트남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164	-6,953	-10,706	-9,636	-10,285
경상수지/GDP	-0.3	-9.8	-11.9	-10.5	-10.9
상 품 수 지	-2,776	-10,438	-12,783	-12,135	-13,073
수 출	39,826	48,561	62,685	55,270	60,382
수 입	42,602	58,999	75,468	67,405	73,455
외 환 보 유 액	13,591	23,748	24,176	17,678	19,068

자료: EIU, Country Report, Dec., 2009.

제1위의 수출 품목인 원유의 수출이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크게 감소<sup>33)</sup>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트남 정부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추진 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정부 목표치<sup>34)</sup>를 초과한 9.1%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라.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베트남 상품수지는 섬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입액 증대, 외국인 투자확대로 인한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 증대, 그동안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인한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금의 수입 증가, WTO가입 및 AFTA 추진으로 인한 관세율 인하로 수입수요 증대, 주요 수출품인 쌀의 수출 금지 등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 중에만 169억 달러에 이르는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경제 침체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로 적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2008년 전체로는 약 128억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32) 석유 생산 및 수출로 인한 재정 수입이 전체 재정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33) 2009년 중 베트남의 석유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09년 2월 베트남 최초의 정유공장인 중팻(Dung Quat) 정유공장이 본격 가동을 개시하면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약 1/3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34) 베트남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는 IMF 권고 기준인 5% 이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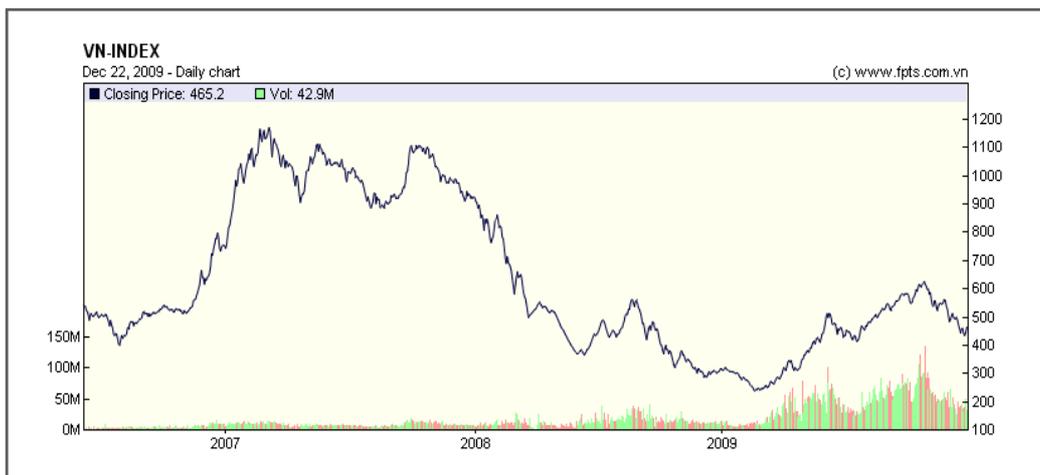
2009년에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입액과 수출액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간재 및 원자재의 수입규모가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 마. 주가지수 폭락 이후 회복세

베트남 경제성장의 상징인 호치민시주가지수(HOSE)는 2006년 하반기 이후 고도 경제성장 지속 및 외국인투자 급증으로 약 6개월 만에 250%나 상승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 주가 상승의 배경은 실물 경제의 실질 성장보다는 베트남 내 유동성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2007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한 이후 베트남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주가지수도 급락하게 되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가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리먼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가시화 되면서 2009년 2월 26일에는 242.5P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주요 선진국 및 베트남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지수는 2009년 11월 들어 베트남의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베트남 동화의 대미달러 시장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신속히 이어진 중앙은행의 기준환율 5% 평가절하 및 환율 변동폭 축소 등의 조치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그림 VI-1〉

베트남 주가지수(HOS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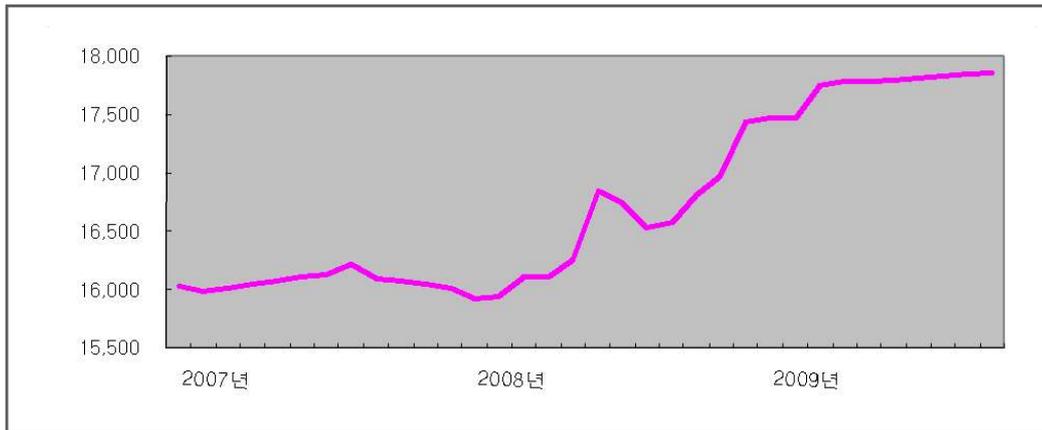
## 바. 동화 환율은 점진적 상승세 전망

베트남 동화 환율은 2008년 초까지 수출증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에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물가상승, 상품수지 적자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 등 경제 불안 현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승세(평가절하)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들어 베트남 정부는 동화에 대한 시장 환율을 반영하기 위해 환율 변동폭을 5%까지 확대하였고, 상품수지 적자규모도 추가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베트남 동화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1월 들어 베트남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함에 따라 2009년 말 외환보유고가 전년의 242억 달러에서 17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동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11월 25일, 동화의 대미달러 기준환율을 약 5% 인상하는 전격적인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환율변동폭은 기준환율 대비 상하 5%에서 3%로 축소하였다. 이후 베트남 동화 환율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상품수지 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유입 회복, 물가상승 압력 완화 등 베트남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환율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VI-2〉 베트남 동(Dong)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단위: 1달러당





### 3. 2010년 경제 전망

베트남 경제는 2008년 이후 물가 급등, 주가 폭락, 부동산 버블 심화,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러한 현상들은 현재도 베트남 경제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베트남의 외환위기 등 심각한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개방경제 체제의 초기 단계를 막 벗어난 상태로 아직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부문에서의 대외 채무가 많지 않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2008년 말 기준 대외채무 비중이 GDP 대비 29%에 그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6%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9%대에서 7%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베트남 경제 규모 및 체제가 아직은 베트남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크지도 않고 자유화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크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현재 베트남 경제가 불안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베트남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베트남 경제가 외환위기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베트남의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 의류, 원유 등의 수출 산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중 베트남 경제는 고도성장의 원천이었던 수출 산업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서비스 산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산업생산의 뚜렷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2009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국제유가, 원자재 등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 요인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7~8%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한때 150% 달하였던 국내신용 증가율이 30%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도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수입액과 수출액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간재 및 원자재의 수입규모가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함께 베트남 사회의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반발도 증대되어, 환경 및 노동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물가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베트남의 주요 도시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이 2010년부터 기존 120만동(약 72.5달러)에서 134만동(약 75달러)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베트남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베트남 진출 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K**